

합리적인 행동가,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고객홍보팀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드시면서 말씀 나누세요.” 보통 손님이 오면 차 한 잔을 내주며 환대한다. 그런데 여기 찰랑찰랑 한 컵 가득 뽀얀 우유를 내준 곳이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우유와 쇠고기를 공급하는 낙농농가들의 단체, 한국낙농육우협회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하면서 설핏 웃음 짓던 이승호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취임식을 마치고 이 협회의 회장으로서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 취임한 것은 맞지만 진정한 신입 회장은 아니다. 그의 회장 선임은 이번이 4선째, 3선 회장 임기를 마치고 협회를 떠났던 그는 3년 만에 다시 회장 자리로 돌아왔다.

“원래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미 회장을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농가가 날 절박하게 원했다. 다시 선거에 나왔다가 혹시 잘못되면 좋은 평 받고 잘 마무리했는데 괜한 이미지 손상만 클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 끝에 ‘농가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면 나도 없다’고 생각해 결단을 내렸다.”

마음을 굳힌 후 그는 농가들을 만나며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농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잘 정리해 7대 공약을 세웠다. 물론 공약 외적으로도 숙제는 많고, 이중에는 시급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할 문제도 있다. 하지만 단연 그의 수첩 맨 위에 적힐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애초 협회가 설립된 목적대로 일하겠다는 것이다.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대변하며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가장 기본적인 일인 만큼 쉽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낙농업 현황은 이 단순한 과제를 풀치 아픈 난제로





받아들이게 한다. 우유는 계속 남아돌며 농가의 피해를 과장시키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쇠고기의 공세도 진땀을 빼게 하고 있다.

“축산 품목 중 가장 복잡한 게 낙농이다. 비빔밥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된다. 비빔밥을 깨끗이 나눠보자면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걸러내야 한다. 낙농에 있어서는 우유도 복잡하고, 육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육우는 한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늘 후순위로 밀려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당장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누적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침체되어 있는 국내 우유 시장 속에서 이어진 우유 대금 체불이 가장 아프게 와 박힌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이다. 어려운 과정과 싸움의 결과가 연동제다. 유업체와 정부, 낙농가가 합리적으로 이뤄낸 협의점이다. 당연히 임의적으로 막 바뀌서는 안 되는데 그걸 거스른 결과 농가가 이렇게 아프게 됐다.”

특히 그는 쌓여가는 오해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쌓여가는 우유에 대해 얘기하며 그 원인이

연동제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매스컴의 왜곡된 보도로 소비자의 부정적 시각이 늘게 됐다는 주장이다.

“남는 우유는 연동제가 아니라 무역확대를 위해 체결한 FTA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관세가 자꾸 낮아지니 안 그래도 늘어가던 수입물량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게 됐다. 한미FTA만 놓고 봐도 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발효 전에 비해 전체 축산물 수입량이 36.8%, 금액으로 보면 114% 늘었다. 그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유(탈지+전지)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700톤을 수입해 발효 전 평균 300톤 대비 약 1874.1%(금액대비 1339.7%)가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나 유업체가 수입 쪽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는 강력한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성이라던 기존의 평이 떠올라 그의 생각을 함께 물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협회장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협회의 행동도 달라진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평소에는 대화도 잘하지만 중요한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강력히 행동한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협상할 수 있지만, 외면하고 왜곡되게 접근한다면 단순무식하게 나가면 된다. 싸우면 이겨야 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한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있다.”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시선이나 ‘청정’의 이미지를 앞세운 호주나 뉴질랜드산의 공세도 속제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봐도 소비자 인식 변화가 어렵고, 또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난 고기를 안 먹으면 눈이 침침해져 앞이 잘 안 보인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닌가. 고기도 골고루 먹어야 생체리듬이 잘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도 안 좋은 커피는 대자로 들고 다니며 마시면서 우유에는 박하다. 우유의 무궁무진한 영양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수입산의 청정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 우유 질은 우리가 더 좋다. 세균수 등을 세부지표로 놓고 비교할 때 우리 시유가 A급이라면 호주는 B 정도, 우리 2등급이 거기 1등급 수준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요즘 그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 담배도 늘었다. 이날도 “인터뷰 앞두고 반신욕도 좀 하고 푹 쉬어서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결국 생각 끝에 잠을 설치다”고 고백했다.

“농가의 기대가 크다.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큰 기대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욕심으로 선불리 움직일 생각은 없다. 지금 낙농육우협회의 당면 현안들은 풀어나가자니 얽힌 실태라가 참 복잡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켜있는 걸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신중히 생각중이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칠 때쯤, 이승호 회장은 “이 말을 꼭 독자 분들, 특히 소비자 분들께 전해주면 좋겠다.”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인터뷰 내내 쏟아냈던 발언들에 낙농육우의 현황에 대한 고뇌와 열의가 묻어났다면 끝은



마음 속 깊숙이 담아왔던 간절함이 담뱃 담겼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하며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유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인은 물론 어린이 노년 모두의 건강에 좋은 영양을 담고 있지요. 건강을 위해 비싼 녹용, 홍삼도 좋지만 가장 저렴한 우유 한 잔이 큰 힘이 됩니다. 우유도, 고기도 편식 여하에 따라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고루 자주 접하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독립정**

